

사명 대사 추모법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사명대사 열반 398주기를 맞아 9월 25일 오전 9시 초음 어린이대공원 사명 대사 동상 앞에서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제1부 육법공양 및 영산재에서는 어산스님의 영산재 시연, 불교TV 열불공양모임의 육법공양, 스님 및 일반 내빈의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동상 앞에서 추모제가 열리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까지 사명대사 위패 이운 행진을 한다.

제2부 추모대법회에서는 바라밀 무용단의 불교전통무용 '연화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명 대사 위패 이운팀의 입장 및 육법공양, 영산재, 사명대사 행장소개, 헌화, 기원문, 추모사, 사명대사 추모가 합창 순으로 2시간여에 걸쳐 봉행될 예정이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가을 산사순례

거장군 숲의쉼터 노인복지관(관장 심우)은 가을맞이 어르신 산사순례를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0일 화요일 충남 부여의 백마강 황포돛대와 고관사, 무량사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회비는 1인당 1만원으로 증식 및 교통비가 모두 포함된다.

선착순 300명에 한하며 참가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055)945-2014 박지원 기자

심우도 선묵전

선사화 대중화를 위한 '심우도 선묵전'이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 지하2층 대하미술관에서 열린다.

9월 30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2008년 전국 최고미술대전 동양화 부문에서 일선한 울산 심우사 주지 현정 스님의 작품 15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현정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정소가 유동스님이 많은 지하철역에 마련된 미술관이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심우도는 인간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을 이르는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것과 비유해 묘사한 것으로 모두 10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지원 기자

하늘물고기가 안내하는 축제 속으로

범어사 9월 28일~10월 5일 금어문화축제 개최



올해 개산대제는 지역문화축제로의 발돋움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산대제의 모습.

이러 노인인날인 10월 2일에는 어르신 장기자랑 및 자비의 쌀 나눔, 영정사진 무료 촬영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10월 3일에는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본격적인 개산대제 법회를 봉행하고 명종타종, 기념법요식, 대비식 시연 등이 이어진다.

10월 4일에는 '금샘을 찾아서'를 주제로 등불로 환히 밝힌 산길을 따라 신화 속 금샘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10월 5일 폐막식은 금어를 세상에 알리는 시민예술제에 대화합의 장을 연다. 소망 등불행렬이 범어사 인근 지역을 밝히고 안치환콘서트로 막을 내린다.

1330년 전 범어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문화와 결합해 친근한



종교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온 범어사 개산대제가 이제 부산을 넘어 세계 속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어문화축제의 '시어' 같은 부제는 범어사 창건설화에서 왔다. 한 마리의 금빛 나는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속에 놀았다고 해 '금정(金井)'이라는 산 이름과 '하늘나라의 금어(金魚)'라고 하는 절 이름을 지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인터뷰-정여 스님

"사람·자연 어울림마당"



"유구한 신화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일등 전통문화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금어문화축제는 범어사의 역사와 금어신화를 바탕으로 단순한 종교의례를 넘어 문화 예술로 승화시킨 지역문화축제다. 정여 스님은 "개산대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축제문화를 창조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축제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어축제는 금정산속 금샘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님은 "최근 가지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 파괴 논란이 이슈인데, 설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축제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세계인이 찾아와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로 지구촌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성재문화원 야단법석 백고좌

부산 성재문화원(원장 이강원)은 10월 19일 오후 1시 해운대 백고좌 콘벤트홀에서 국민대화합·국가경제발전 기원 백고좌대법회를 개최한다.

백고좌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간 100인의 큰스님을 초청해 설법하던 전통 불교법회다. 619년 신라 진평왕 때 경주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 법사 등을 맞아 설법하면서 시작됐다가 조선시대 들어서 맥이 끊

어졌다가 이번에 성재문화원이 다시 되살려낸다.

이번 법회에 참가하는 스님은 모두 100명으로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미륵사 주지 정각 스님 등이 설법에 나선다.

성재문화원 이강원 원장은 "백고좌 법회는 신라 이후 10월 중 3일간 걸쳐 성대하게 열리는 정기 행사로 발전해오던 중 호국불교에 대한 원나라의 압력으로 점차 쇠퇴했다"며

서 "750여년 만에 재현하는 만큼 잃어버린 우리 전통 문화를 찾는 데 역사, 문화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재문화원은 야단법석을 통해 대중법회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1999년 고산 대종사 초청법회를 시



성재문화원이 지난해 7월 19일 KBS부산홀에서 개최한 불심 도론 스님 초청 대법회.

작으로 매년 5000여 명 이상 참석하는 대규모 법석을 만들고 있다. (051)863-4441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부나 혼자 부산불교인재개발원 이육태 원장

"불교의 비전 '교육불사'가 기본"

"부처님 뜻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만 못하죠.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원력과 소신 갖춘 불자를 양성할 것입니다."

올해 초 인재 불사를 통한 불교 저변인구 확대와 올바르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불교사상의 정립을 발원하며 부산불교인재개발원(원장 이육태)이 처음 문을 열었다.

초대 원장을 맡은 이육태 원장은 군법사 출신으로 인재불사를 위해 십수 년 해동중학교 교법사로 헌직에서 뛰고 있다. 그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불교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아쉽다"며 "어릴 때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부처님 가르침에서 삶의 신념과 가치관 등이 평생에 걸쳐 형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불교인재 양성 시스템이

교양대학과는 차원이 다르다. 초심자를 위한 기본교육부터 남다르다. 조계종 포교원장 해종 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 등이 법사로 초빙됐다. 이육태 원장은 "신도회 공병수 회장의 원력으로 이렇게 법적 높으신 큰스님들을 모시게 됐다"며 "우선 강사진 외 각 분야별 전문인으로 구성돼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이에 따라 강의 내용 또한 심도 깊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별화된 특성을 인정받아 현재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진행 중이다.

2009년 2월 수료하는 1기 교육생들 중 일부는 전문강당 과정, 전문 과정, 한국 불교역사문화과정을 총 9년간 거쳐 부산불교계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각 분야 이끌 지도자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군법사 시절부터 올바른 불교사상을 갖춘 참 불자를 기르고 싶었고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교육과 인재 불사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부설 전문교육기관으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신도회관 건물 5-6층에 자리 잡은 교육원은 일주일 내내 200여 수강생이 모여 들어 배움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현재 9월초 개강한 제1기 입문자수행학교와 불교전문강당 수강생을 모집해 기존 교육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전통 불교 교육을 운영 중인데 각 사찰이나 신행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불교

한편 개발원은 청년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원어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캠프, 도심 속 일방인 템플라이프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불교 문화제의 감시,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할 모니터링 해설사 전문 과정, 재가 종무원 전문 교육도 기획 중이다.

하지만 이육태 원장은 더 큰 미래를 꿈꾼다. "단순한 교육의 관의 틀을 넘어 불교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 전반의 문제들, 가령 사회복지, 여성문제, 제3세계,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가져 올바른 미래를 여는 비전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51)853-2021

박지원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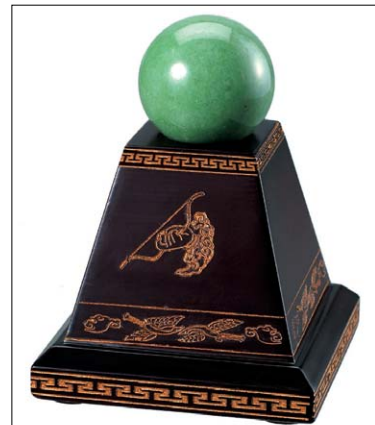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홍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미종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화제의 영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또는 합정주 택1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 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천룡 성왕이 바위를 부숴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의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의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증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력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며, 병든 중생은 건강 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정주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